

<b>민 지 실</b>	<b>음 혜 천</b>	<h1>BUDDHANARA</h1>	FAITH WISDOM ACTION
----------------------	----------------------	---------------------	---------------------------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佛性을 밝힌다.

###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법회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정기 법회

첫째주 일요일 11 시 초하루 인등기도 법회 및 새로운 찬불가 배우기

셋째주 일요일 11 시 : 전법기도 법회 및 새로운 찬불가 배우기

매주 둘째주 화요일 5 시: 어린이 참선 법회



### 조지아주 애틀랜타 법회

둘째주 일요일: 정기법회 오전 11 시 - 오후 1 시

Pinckneyvill Park 에 있는 Pinckneyville Community Center. Room #5

새벽기도: 아침 6 시 30 분-7 시 (아침예불 및 참선)

(새벽기도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사찰에서 아침공양을 제공 합니다.)

###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Zen Meeting -

Every Saterdag 9am. (매주 토요일 9 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 이달의 법구경

파도처럼 흔들리고  
쉬지 않고 움직이는 마음  
잡아두기란 힘든 일이니,  
화살 만드는 장인  
곧은 화살 만들 듯이  
지혜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마음 바로 잡게 하라.

The mind is wavering and restless,  
difficult to guard and restrain;  
let the wise man straighten his mind  
as a maker of arrows makes  
his arrows straight.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http://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10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법전 중정예하 하안거 결제법어 : 세존께서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내려오신 뜻은? 도립법전 조계종 중정예하가 5 월 28 일(음력 4 월 15 일) 하안거 결제를 맞아 전국의 수행납자(修行衲子)들에게 정진을 독려하는 법어를 내렸다. 법전 중정예하는 부처님과 문수보살의 대화를 예로 들며 “세존께서 법좌에 오르자마자 내려오신 뜻이 무엇인지 결제대중은 하안거 내내 잘 참구해 보시기 바란다”며 “문수처럼 뭔가 한 마디 자기목소리를 내놓을 수 있도록 90 일 동안 용맹심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안거(安居)란 동절기 3 개월(음력 10 월 보름에서 다음해 정월 보름까지)과 하절기 3 개월 (음력 4 월 보름에서 7 월 보름까지)씩 전국의 스님들이 외부와의 출입을 끊고 참선수행에 전념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한국불교의 안거수행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전통적인 단체 수행문화로 알려졌다. 조계종에서는 매년 전국 100 여개 선원에서 2200 여 명의 수좌 스님들이 안거 기간 수행에 매진하고 있으며, 일반사찰 스님과 신도들도 함께 정진한다.

### 도립법전 중정예하 불기 2554 년 경인년 하안거 결제 법어 전문

세존께서 법상에 올라가 앉자마자 문수보살은 설법을 마치는 종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왕의 법(法)이 여시(如是)하나이다.

부처님의 법이 이리하나이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즉시 그 자리에서 내려 오셨습니다.

행자(行者)가 복을 칠 필요도 없는데 천고(天鼓)가 저절로 울렸으니 어리둥절한 자가 하늘과 땅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눈 밝은 이가 보면 세존께서 자리에서 내려오신 것은 자리에 오른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는 오월 유월 호시절의 아름다운 경치에 아랑곳없이 바로 뉘시줄을 거두고 집으로 돌아온 그 소식인 것입니다. 그건 지혜제일인 문수만이 세존과 나눌 수 있는 말없는 법담(法談)인 것입니다.

금강경 첫머리는 ‘부좌이좌(敷座而坐)’라고 하여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로 시작합니다. 자리 펴고 앉았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눈이 제자리에 붙어있는 납자들에게 그것은 당연한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법좌인 까닭입니다. 부처님이 앉는 곳은 평상이건 맨바닥이건 모두 법좌입니다. 어디에 앉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앉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 까닭입니다.

그래서 밀암함걸 선사는 모자라는 공부로 그 자리에 나아가면 자신의 공부마저 매몰시키게 되지만, 제대로 된 공부인이 앉았다면 사면팔방에 맑은 바람이 흐르도록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런 도리를 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야 결제를 할 자격이 있고 또 해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법좌에 오르자마자 즉시 하좌하였습니다. 이를 보고서 문수는 ‘여시(如是)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께서 법좌에 오르자마자 내려오신 뜻이 무엇인지 결제대중은 하안거 내내 잘 참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수처럼 뭔가 한 마디 자기목소리를 내놓을 수 있도록 90 일 동안 용맹심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초전타착(焦煎打着)하니

연저동(連底凍)이로다

뜨거운 벽들로 쳤는데

밀바닥까지 얼었구나.

불기 2554(2010)년 하안거 결제일에

대한불교조계종 중정 도립 법전

### 봉암사 하안거 결제 현장 : “매순간 최선 다하는 게 진정한 수행”

불기 2554 년 하안거 결제. 여느 때와 같이 2300 여 명의 운수납자들이 활인검(活人劍)을 갈기 위해 전국 100 여 곳 선원에 방부를 들였다. 결제를 하루 앞둔 지난 5 월 27 일 조계종립 특별선원 봉암사를 찾았다. 13 년 만에 가장 청명하다던 날씨. 회양산의 암벽 봉우리가 유난히 하얗게 빛난다. 금방 무명초를 깎아낸 스님의 정수리처럼 맑고 단단하다. 봉암사(鳳巖寺)는 신라 말 한국 선불교의 출발을 알린 구산선문의 하나다. 서기 879 년 지증국사가 창건한 회양산문(曦陽山門)이 이곳이다. 봉암사가 역사의 전면으로 재차 등장한 때는 1947 년. 오늘날 조계종 수행가풍의 뼈대를 세운 봉암사 결사다. 성철 청담 자운 우봉스님 등 20 명의 스님들이 “모든 임의(任意)와 이익을 떠나 오직 부처님 법대로 살아보자”며 의기투합했다. 공주규약(共住規約)을 만들고 선농일치(禪農一致)를 실현하며 청정한

화합승의 전범을 보여줬다. 한국전쟁 중에 결사는 3년 만에 막을 내렸지만 이후 왜색을 청산하는 불교정화운동의 실천적 기반이 됐다. 1982년 봉암사 결사의 상징성을 계승하자는 취지로 종단의 특별수도원으로 지정되면서 봉암사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일반인들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해 오로지 남자들의 선기(禪氣)만이 살아있게 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하다. 방부를 들인 60여 스님들의 얼굴엔 봉암사에 살고 있다는 만족감, 봉암사에 살 수 있다는 자부심이 선연하다. 덩달아 뿌듯하고 기가 산다.

특히 지난해 봉암사 수좌로 추대된 적명스님의 법문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었던 게 제법 목직한 소득이었다. 출가한 지 50여년, 제방 선원을 돌며 크게 공부를 이뤄 선객들의 신망이 두텁다. 하지만 소임이라곤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를 맡았던 게 전부. 그간 인터뷰는 커녕 한두 마디조차 아끼던 스님이다. “공부가 덜 끝났다”는 게 이유다. 봉암사 대중이 최고 어른인 조실로 모시려 했으나 끝내 사양한 까닭이기도 하다. 스님은 “수좌로서 조실 뭇까지 하던 될 뿐 자리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며 물리쳤다.

적명스님의 법문은 간결하면서도 알이 굵었다. “수행은 일상 속에서 꾸준히 해야 한다”고 말했고, “주어진 상황을 견디며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라고 말했다. 스님에 따르면 참선은 정(定)과 혜(慧)를 계발하는 작업이다. 정은 마음의 본바탕이요 혜는 본바탕에서 드러나는 능력이다. 참된 지혜는 맑은 거울과 같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호수가 맑고 고요하면 수면 위로 푸른 하늘이 있는 그대로 나타나지만, 물결이 치면 하늘의 모습도 일그러지기 마련이다. 결국 실상을 정확하게 보려면 마음이 평온해지도록 수행을 해야 한다는 요지다.

누구에게나 버겁고 모진 삶, 나침반 혹은 수통으로 삼아 지니고 다닐 만한 지침으로 보리달마 스님의 사행(四行)을 꼽았다. 현재의 고난을 내가 만든 결과로 여겨 달게 받아들이는 보원행, 인생의 희로애락을 모두 인연에 의한 것으로 보고 덤덤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수연행, 일체를 공(空)으로 인식해 부질없는 욕심을 버리는 무소구행. 진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청법행. 새삼 가슴을 울렸다.

조직생활에 부대끼며 가장(家長)의 무게에 짓눌려 참나 찾기에 짊을 내기 어려운 재가불자들에게 “운동하듯이 수행하라”고 다독였다. “하루에 10분, 길면 30분 염불이든 화두참선이든 관법이든 절이든 무엇이든 해보라”고 권장했다. 계속해서 정신을 하나로 모으면 어느 땐가 삼매에 들고, 희열을 체험하리란 것이다. 끝내는 누가 값진 차를 선물한 것도, 아파트를 증여한 것도 아닌데, 그저 벽을 바라보며 홀로 있을 뿐인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만끽하게 되리라고.

- 불교신문에서 발췌 -

## 열린 마음으로 함께하는 세상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 주지 선각 스님

인간의 이기적 아집과 욕심은 스스로를 태워 멸망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넘어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인류에게까지 좋지않은 영향들을 미친다.

나만이 최고다.

내 민족만이 최고다.

내가 가진 종교만이 최고다.

여기에는 내가 아닌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자비심이 조금도 엿 보이지 않는다. 폐쇄되고 도전적이고 호전적인 정서마저 엿보여 무섭기까지 하다.

올해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지 2554 번째 맞이하는 부처님 탄신일을 맞아 대한불교조계종이 내걸은 슬로건은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이다.

함께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이 세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몫이다. 내가 있으므로 상대방이 있고, 상대방이 있으므로 내가 있다. 즉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나의 행복이 상대방의 행복이다. 그런데 이기심이 충만하여 상대방에 대해 닫힌 마음으로 가고자 한다면 그곳에는 분쟁과 불행, 더 나아가서는 폭력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불교에는 육화경(六和敬)법이 있는데, 육화경은 본래 부처님의 교단의 화합을 위해 수행자가 지켜나가야 할 여섯 가지 공경하는 법인데 일반인들도 지키고 생활해 나간다면 나와 남이 따로 없고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첫째가 사람은 누구나 다 불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처를 대하듯 서로 공경하고 화목 하라. 즉 지위가 높거나 부자가 되었다고 혼자만 호화롭게 생활하면 남의 눈총을 받게 된다. 사회라는 공동체가 행복하게 가기 위해서는 함께 서로 돕고 베풀며 살아야 한다.

둘째는 말로써 서로를 기쁘게 하라. 즉 입은 재화의 문이라 했다.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헐뜯으면 다툼은 필연적이다.

셋째는 마음으로 화합을 하라. 즉 뜻으로 화합해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며 함께 일하면 능률도 배가 된다.

넷째는 율법을 서로 지키라. 나는 해도 좋고 너는 하면 안 되는 법이 아닌 모두가 같은 규율을 지켜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다섯째는 성스러운 지견으로 화합을 하라. 즉 샅된 이익을 위해 옳은 것을 그르다고 하거나 그른 것을 옳다고 하는 것은 화합을 해친다.

마지막 여섯째가 이익을 함께 나누라. 즉 힘세고 술수에 능한 사람은 많이 차지하고 양심적으로 성실한 사람이 적게 갖도록 하면 시비가 끊이지 않게 된다.

이 육화경의 경은 한자로 경서경(經)이 아니고 공경경(敬)이다. 화합은 서로가 공경하는 데에서 오기 때문이다.

기본정신을 요약한다면 “원칙은 지키되 진실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화합의 길은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가정이나 사회 또는 종교가 화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여기에 있다.

분쟁과 불화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의심과 불신 그리고 증오를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불신과 증오는 탐진치 세가지 자신을 과멸에 이르게 하는 지름길이 된다.

내 주변을 돌아보면 내가 배려하고 보듬어 안아야 할 이웃들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죽음에 임박해서 한 평생을 되돌아 보았을 때 공통적으로 가장 후회 된다는 세가지가 있다 한다. 그것은 “좀더 베풀걸” “좀더 참을 걸” “좀더 즐길 걸” 이라 한다. 역으로 해석해 본다면 남에게 베풀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이가 진정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부처님 말씀 중에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인연 있는 사람들까지도 과멸에 이르게 하는 세가지 독이 있다고 했다. 그것은 貪 (탐하는 것), 瞋 (성내는 것), 癡 (어리석은 것) 이다.

남의 것을 탐하고 바라는 것은 본능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노력에 의해서 정정 당당하게 얻어지는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요행과 그 이상의 것까지도 바라고, 때로는 남을 해쳐 가면서 까지도 편법으로라도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성을 내는 것은 감정적인 독이라 할 수 있는데 한번 화를 낼 때마다 죽어서 갈 자신만의 화탕 지옥을 하나씩 만들어 진다 한다.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성내는 마음은 개인간에는 싸움을, 집단과 집단간에는 차별을, 국가간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하는 독이다.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주관적으로 만 판단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물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성적이지 못한 어리석은 판단은 무지, 편견, 선입견, 오해, 이기심에서 나오고 항상 우리들의 마음을 갈등 하게 만든다. 결국 어리석은 판단의 결과는 실패하거나 비참하게 만들고 뒤늦은 후회를 가져온다.

세상사람 들이 임종에 이르러서 후회하는 세가지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독을 제거하는 수행생활로 바꿀 수만 있다면 임종에 이르러서야 때 늦은 후회 않고 멋진 인생을 살다 갈 수 있을 것이다.

탐하지 않고 베풀며 사는 것이 그 첫번째고 성내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사는 것이 그 두 번째이고, 어리석지 않고 진정으로 인생을 즐길 줄 알며 현명하게 인생을 사는 것이 그 세 번째라 할 수 있다.

눈부신 오월의 햇살 속에 맞이하는 불기 255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자신을 돌아보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자비심이 묻어나는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 사찰들이 훼손되고 방화가 나는 기사는 더 이상 접하고 싶지가 않다. 더더욱 부처님 오신 날 행사장에 까지 와서 전단지를 뿌리며 확성기로 전도하는 행위는 자신의 종교를 높이 세우는 것이 아닌 가장 하급 종교로 전락 시키는 행위이다.

이제는 자기 것만이 옳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것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모두와 화합의 첩경은 아상(我相)을 내지 않는 데에 있다. 오늘이 가기 전에 종교를 떠나 인종을 떠나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맞이하는 초여름의 햇살을 즐겼으면 한다.

- 6월 한겨레 저널에서 발췌.

### 美 20 대 "종교 보다 정신적 문제에 관심" ...연합뉴스

미국의 20 대 젊은이들은 기도나 예배를 하지 않고, 종교 보다는 정신적인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 전국 일간지 `유에스에이(USA) 투데이'는 미국의 기독교 연구단체인 `라이프웨이 크리스천 리소시스'가 18-29 세의 밀레니엄 세대 젊은이 1 천 200 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표본오차 ±2.8% 포인트) 결과를 인용해 27 일 이같이 보도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밀레니엄 세대의 65%는 기독교 신자라고 답했고, 특별한 종교가 없다는 응답이 14%,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 신자라는 응답 8%, 불가지론자 8%, 무신론자 6% 등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 분의 3 정도인 72%가 특히 종교 보다는 정신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답했다.

기독교 신자라고 응답한 젊은이들 중에 상당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하거나 예배에 참석한 경험이 없으며, 성경을 읽지도 않는 등 이름 뿐인 신자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응답자의 15%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응답을 했다.

‘라이프웨이 크리스천 리소시스’의 탐 라이너 대표는 젊은 세대의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GM 딜러점이 문을 닫는 속도로 교회들이 문을 닫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조사는 지난 2007년 같은 단체가 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 그리고 지난 2월 워싱턴의 민간연구기관인 ‘종교와 공공생활을 위한 퓨 포럼(PFRPL)’의 조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PFRPL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20대 젊은이들은 부모세대가 젊었을 당시에 비해 종교를 갖고 있는 비율은 낮았지만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미국 ‘국가기도의 날’ 위헌 결정, 찬반논란 속 국회의사당서 기념행사 열려

지난 58년간 미국 역대 대통령들이 선포해 온 기념일인 ‘국가기도의 날(National Day of Prayer)’이 정교분리와 종교자유에 관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두고 미국 사회에서 종교자유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위헌 판결은 지난 4월 미국 위스콘신주 연방법원 바바라 크랩 판사가 내린 것으로, 크랩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정부가 특정 종교 행위를 지지하고 권고하는 기도하는 날은 정교 분리와 개인의 종교 자유에 관한 미 연방헌법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국가기도의 날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도 위헌 판결이 나자 전국 주지사들과 시장들에게 기도하는 날 행사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위헌 판결을 지지하고 나섰다. 하지만 위헌 판결을 반대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4월 22일 이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으며, 일부 보수 정치 지도자들은 국가기도의 날 수호를 위한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위헌 판결에 대한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지시간으로 지난 6일 미국 국회의사당에서는 국가기도의 날 행사가 열렸으며,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도와 명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내용의 선언문을 낭독했다. 한편 국가기도의 날은 1952년 미 양원의 합동 결의 사항으로 통과돼 해리 트루먼 정권 때 법제화된 기념일로 1988년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매년 5월 첫째 주 목요일에 공식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 한국인, 네명 중 한명은 불교 신자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한국에 거주하는 내국인 가운데 대략 네 명 중 한 명이 불교를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의 최근 자료(2005년 집계치)에 따르면 설문 조사에서 불교를 믿는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내국인 4천 704만명 가운데 1천 72만명으로 2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있다’고 답한 사람은 2천 497만명으로, 종교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불교를 믿는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2%에 이르렀다. 불교에 이어 가장 많은 신자를 보유한 종교는 개신교로 861만명이었으며, 천주교가 514만명으로 뒤를 이었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의 3대 종교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신자를 가진 종교는 원불교였다. 통계청 조사에서 원불교를 믿는다고 답한 사람은 전국에 12만 9천명이었고 유교라고 답한 사람도 10만 4천명에 달했다. 반면, 천도교는 4만 5천명, 중산교는 3만 4천명, 대중교는 3천 700여명으로 소수에 그쳤다. 전국의 지역단위 가운데 서울, 인천, 광주, 경기, 전남, 전북에서는 불교보다 개신교 신자 수가 더 많았으나, 나머지 지역은 모두 불교를 믿는 사람이 개신교를 믿는 사람보다 많았다. 서울의 경우에는 내국인 976만 2천명 가운데 종교가 있다고 답한 사람은 533만 5천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개신교를 믿는 사람은 222만 2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불교 164만 2천명, 천주교 138만 2천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서 발췌-

세계 최대 종교는 불교 15억: 가톨릭 13억, 개신교 7억, 이슬람 12억... 지금까지 집계에서 중국 불자수 제외 전 세계 66억 인구 중 가장 많은 인구가 믿고 있는 종교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불자수는 3억 6000만 명으로 20억 인구가 믿는 기독교보다 턱없이 적은 숫자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세계 불자수가 15억에 이른다는 흥미로운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서 ‘진흙속의연꽃’의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블로거는 “세계종교인구”라는 ‘한글’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불교가 3억 6000만, 가톨릭 13억, 개신교 7억, 이슬람이 12억으로 나온다. 이런 수치는 우리나라 인터넷 어디를 찾아봐도 거의 동일하다. 정말 불교 인구가 이것 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위키피디아와 ‘릴리저스틀러런스’에서 세계 종교 분포도를 검색한 결과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인구통계 자료의 편차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불교는 3억 5000만~16억으로 큰 편차를 보였다”며 “중국 불자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불자수가 15억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구글(Google)로 세계종교인구(world religion population)를 검색해본 결과, 종교인구 분포도에 불교는 2억 5000만~5억으로 표시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숫자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도표 밑에는 각 지역별 종교에 대한 해설과 함께 중국의 종교(Religion in China)편이 있다. 이 가운데 불교 편에는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열거돼 있다.

위키피디아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부터 불교는 억압을 받다가 최근 들어서야 다시 인기를 얻고 있으며 가장 많은 신도를 갖는 체계화된 종교로 회복할 수 있었다”며 “중국정부는 10억의 인구가 불교를 믿는 것으로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또 위키피디아는 “오늘날 중국과 대만에서 정토종과 선종의 혼합된 형태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도시의 성공한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 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불자수는 6억 6000만(중국 전체인구 중 50%)에서 10억(80%)으로 예측됐고, 이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불자를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며 “하지만 정확한 불자수를 측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집하는 모임도 없고 공식적인 종교의식이나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대승불교를 믿는 중국인들 스스로 도교와 불교를 동시에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계 각국의 종교를 아우르는 포털사이트 릴리저스 툴러런스(religioustolerance.org)는 세계 종교 현황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게재했다. 종교 인구분포에서는 타종교는 편차가 없었지만 불교는 3억 5000만에서 16억으로 매우 큰 편차를 보였다. 이 사이트는 불자인구의 편차가 큰 이유에 대해 “종교의 자유가 없는 국가에서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1995년 중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단 5%만이 불자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위키피디아는 국가별 불교현황(Buddhism by country)에서 각 나라별 불교인구 현황을 조사해 도표로 나타냈다. 그 결과 다른 나라는 편차가 없었던 반면 중국은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한 탓에 최소 8%에서 최대 80%로 집계됐다.

중국의 불자 비율을 인구수로 환산하면 1억 5000만~10억 5000만 명이고, 전 세계 분포된 불자 비율을 합산한 결과 66억의 인구 중 7.3~22.6%가 즉, 4억 8000만~15억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 세계 불자수에서 중국 불자를 뺀 값을 보면 3억 3000만~4억 5000만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계 불교인구 3억 6000만과 근접한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즉, 중국 불자를 뺀 정보가 신뢰도 있는 정보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위키피디아 등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엄밀히 분석하는 일이 남았지만, 세계 불자수를 최대 15억으로 집계한 것은 주목된다. 세계 종교 인구 통계는 다시 쓰여져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불교를 축소하려는 의도를 지닌 옛 통계였다면 더욱 그렇다.

-붓다뉴스에서 발췌-

## 봉 축 기 도

온 누리에 가득하신 광명의 부처님,  
정갈한 마음으로 향 사르며 공양하오니  
한 줄기 향연이 법계에 가득하여  
부처님 회상 상서롭게 장엄하여지이다.

저희가 무량한 세월 착한 인연 뿌리내려  
금생에 ‘부처님 만남’의 꽃 피웠습니다.  
이제 가냘픈 신심이나마 여린 가슴에  
초발심의 촛불되어 타오르고 있나이다.

거룩하신 부처님!  
오직 한 가지 중생을 청정케 하시고  
큰 깨달음의 길 열어 보여 주시려는 원력으로  
사바에 나투신 그 ‘오심’의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이 찬란한 오월 떨리는 감격으로님을 맞사옵니다.  
크나큰 가피와 은혜 그 빛나는 만남 위해 기도하옵니다.  
언제나 ‘부처님 오심’ 그 기쁨으로 가득하여  
오락의 삶 속에 한 송이 하얀 연꽃  
피워내기 발원하옵니다.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 (영문이름: **Buddhanara Temple**)에서는 불기 2554년 (2010년) 5월 16일 (양력)에 부처님 오신 날 칠일 기도를 입재 및 연등과 단주 만들기가 있었고, 5월 23일에는 부처님 오신 날 칠일 기도 회향 및 법요식과 일년 연등 공양을 부처님 전에 올렸습니다. 모두들 소원성취 하십시오.

다음은 일년 연등 기도 동참자 및 일년 영가 연등 기도 동참자 명단입니다. 지면 관계상 주소는 생략 했습니다.

불기 2554 (2010)년 경인년 봉축 일년 연등 기도 동참자 명단

\* 세계평화 원만 성취 발원

\* Atlanta, Georgia 불사 원만 성취

1. 을해생 무량화 문봉순; 2. 기유생 문성훈, 경술생 최윤영, 임오생 문현배; 3. 경진생 박영찬, 임진생 하재숙, 무신생 박수민; 4. 을미생 Tong Stanley, 을사생 김수연; 5. 병오생 도광 이찬혁, 기유생 이은정, 정축생 이지민; 6. 갑신생 Debra Tak (탁순자); 7. 김대성; 8. 임진생 조남국, 무술생 현심행 김철아, 갑자생 조민우; 9. 병오생 Eric Smith, 을묘생 Chaeson Smith; 10. 계축생 무문 김두환; 11. 병진생 무영 김동하; 12. 기사생 강미자, 신축생 강용택, 기해생 관음성 강상숙, 경오생 강정철, 무인생 강현대; 13. 무인생 Billie Lewis, Sun K Lewis; 14. 갑오생 심용택, 정유생 능도성 한경련, 병인생 심상준, 무진생 심상완; 15. 경인생 이재천, 을미생 자비행 이명숙, 을해생 Steven Lee; 16. 갑진생 Mark Miller, 계묘생 여래성 Seonyoung Kim, 무인생 Aidan Miller, 경진생 Ryan Miller; 17. 임신생 자비화 나홍열, 무술생 김진홍, 기해생 최미리, 병신생 김성화; 18. 경자생 신현봉, 경자생 김선미, 기사생 신성호; 19. 무술생 박금란; 20. 무인생 법화행 신경숙, 무신생 정행 원상희; 21. 유생 법성월 신동희, 임진생 법성화 신동립; 22. 을해생 임명환, 정축생 서석용, 경술생 임소영, 경진생 한도연; 23. 임진생 성락 권혁만, 계사생 문수지 권효정, 신유생 진공 권순철; 24. 계묘생 진오 임재현, 정미생 수연성 강삼화, 을해생 임정민, 정축생 임우중; 25. 무자생 박정근, 기축생 이호임, 병진생 박지훈, 자부 경신생 김우진, 신유생 박성원, 을축생 James Gast; 26. 임인생 보현심 서정신, 임신생 이은경, 갑술생 이은석; 27. 무진생 최춘자, 갑오생 근일 허정석, 기해생 김원미, 갑자생 허윤정, 기사생 허정민; 28. 무자생 김추윤, 임진생 이양선, 을축생 김애니, 정묘생 김재니; 29. 계묘생 김덕호, 신축생 이병옥, 신미생 김정우, 갑술생 김수우; 30. Charles McGibbon, Rebecca Treiman; 31. Gregory R. Kilper Family; 32. IL-Kwon Kim (김일권), 청신녀 장혜옥; 33. 도해 Brian Barry; 34. Lawson Robinson, WooIn Robinson, Rigel Robinson, Kentaurus Robinson, Chiron Robinson, Lawson Robinson; 35. 갑자생 윤순점, 신미생 양희성; 36. 경본스님 (Joseph Bard McGibbon); 37. 갑오생 배제현, 무술생 최문선, 병인생 배진, 무진생 배수진, 임신생 배민철; 38. 무술생 황전아, 신축생 장명자, 정묘생 황규진, 신미생 황규희; 39. 정미생 이천흙, 경술생 장교선, 정축생 이진석, 신사생 이상민; 40. 임인생 송완근, 임인생 임영애, 신미생 송미경, 계유생 송주열; 41. 정미생 한영택, 이현주, 병자생 한서경, 기묘생 한주영; 42. 병자생 한정언, 경진생 장복도; 43. 정유생 황인술, 병신생 심애련, 갑술생 황영찬; 44. 임술생 Kang Hee Kim (김강희); 45. 을사생 정법안 조양임, 계유생 오두혁, 기묘생 오가연; 46. 계사생 김태희, 무진생 신동윤, 갑자생 성불화 오점순; 47. 정충식, 문수행 허서연; 48. 병오생 신상옥, 경술생 정수연, 정해생 신선우; 49. 신묘생 토마스 스티븐슨, 무신생 김소라, 을해생 정동희, 무인생 정동주; 50. 병자생 덕암 김인규, 신사생 오옥선, 임인생 자광 김용오; 51. 고려 공인 중개사 사무소; 52. 을사생 송보영; 53. 을사생 강효정; 54. 임신생 송채원; 55. 갑술생 송지환; 56. 기사생 조순옥; 57. 정축생 권효영; 58. 정유생 박래경, 무술생 김효례, 기사생 박으뜸, 신미생 박꽃별, 무인생 박샛별; 59. 정미생 황현식, 정미생 박계영, 을해생 황준우, 무인생 황수연, 임오생 황준길; 60. 개운사 합창단; 61. 무진생 김태성, 계축생 이금주, 신사생 김준협, 정해생 김준성, 경진생 김영희, 갑신생 이희영; 62. 경자생 안대원, 무술생 김상화, 신미생 안형철, 계유생 안형태; 63. 경자생 이득용, 계묘생 이경희, 기사생 이지나, 임신생 이지훈; 64. 무자생 문병현, 계묘생 서운순, 경오생 문은배, 갑술생 문성민; 65. 기해생 안애경, 신미생 안계상; 66. 기축생 이범도, 임진생 조화숙, 신미생 이주홍, 을해생 이성훈; 67. 병신생 정순범, 경자생 정정순, 경오생 정영환, 임신생 박난혜; 68. 정축생 황영귀; 69. 임자생 유행석, 을묘생 이경주, 임오생 유동원, 병술생 유하연; 70. 정사생 김인태, 병진생 이주현, 을유생 김이진, 무자생 김이안; 71. 정유생 박찬홍, 경자생 조진화, 기사생 박진우, 신미생 박소현; 72. 갑오생 심재술, 정유생 김옥자, 계해생 심보현, 갑자생 심민국; 73. 경인생 백용기, 정유생 백현옥; 74. 계해생 유선님; 75. 계축생 백존익, 박정훈; 76. 무술생 김애란; 77. 엄기준, 임자생 김민재, 갑신생 엄재용, 병술생 엄준용; 78. 병오생 홍대선, 병술생 정해주, 무인생 홍준수; 79. 정미생 백유상, 신해생 류정아, 병자생 백옥태, 경진생 백정어; 80. 정미생 박광수, 병오생 김효정, 을해생 박은지, 정축생 박병주; 81. 계묘생 손영찬, 경술생 김효진, 정축생 손명옥, 기묘생 손해림, 신사생 손명호; 82. 경자생 민정기, 신축생 송혜숙, 계유생 민경문, 무자생 김기준; 83. 경인생 신동화, 계묘생 이승민, 기축생 신연수; 84. 정유생 송령호, 기미생 이인섭; 85. 신축생 박영희, 정묘생 최규리, 기사생 최석제; 86. 무술생 박광현, 기해생 신정순, 신미생 박수혜, 신미생 박수윤; 87. 정미생 심영복, 정미생 김영화, 을해생 심유리, 정축생 심우용; 88. 갑진생 김준만, 무신생 정미경, 을해생 김민국, 임신생 김희지, 병자생 김민지; 89. 신축생 최경오, 계사생 김정숙, 임신생 최우리; 90. 기해생 김성도, 임인생 이상희; 91. 병진생 이동엽, 최윤영, 이고은; 92. 갑인생 이은숙; 93. 대운 김기현; 94. 기유생 청운심 이정상; 95. Lloyd Harvey; 96. 전현진; 97. 병신생 김영준, 병신생 광정숙, 계해생 대행 김군한; 98. 갑오생 이경자, 경신생 박지영, 갑자생 박장훈; 99. 기사생 덕련화 김재수; 100. 갑진생 박봉성, 경술생 정성희, 계미생 박준영, 갑신생 박준희; 101. 경술생 이덕예, 정수화, 이덕자, 이덕순, 이덕희, 이덕임, 이현숙; 102. 계묘생 박창규; 103. 갑술생 김주성, 김주호, 최송순; 104. 임인생 김종수; 105. 신사생 김경자; 106. 전일중학교; 107. 열린 시민사회; 108. 전곡 초등학교; 109. 김순녀; 110. 김경숙

불기 2554 년 (2010)년 일년 영가 연등 기도 동참자 명단

1. 강석주 대종사 선영 영가 (선각 복위); 2. 망부 남편후인 문정모 영가 (행효자 문병현 복위); 3. 망부 전주후인 이귀남 영가, 망모 남편유인 양선산 영가, 망 언니 전주유인 이호섭 영가 (행효녀 이호임 복위); 4. 망조모 밀양유인 손덕연 영가,

망모 진학미 영가 (행효녀 박수민 복위); 5. 망 맹부 원주후인 원용기 영가, 망 맹모 달성유인 서병희 영가 (행효자 원상희 복위); 6. 망 달성배씨 영가일체 (행효자 배제현 복위); 7. 망 오빠 탐진후인 최치남 영가 (행효녀 최문선 복위); 8. 망 친정 영가 일체 및 탐진 최씨 영가 (행효녀 최문선 복위); 9. 망 부 평산후인 신 길철 영가 (행효자 신동윤 복위); 10. 망 정민식 영가 (행효자 정중식 복위); 11. 망부 진주후인 강대학 영가 (행효녀 극락심 강효정 복위); 12. 망부 은진후인 송호창 영가 (행효자 송보영 복위); 13. 망 도반 광산유인 김가야 영가, 망 도반 원주후인 변형각 영가 (강 효정 복위); 14. 망 진양후인 정강자 영가 (황영귀 복위); 15. 망 창원황씨 일체 영가 (행효자 황현식 복위); 16. 망 이영수 영가 (이덕예 복위)

## 법회소식 NEWS

- 조지아주 부다나라 정기 법회는 부다나라 (불국사) 사찰이 조지아주에 창립될 때까지 매달 둘째주 일요일에 Pinckneyville Community Center 에서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계신 불자님들과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 주지 선각 스님을 모시고 정기 법회를 가집니다. 관심있는 분들과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2009년 12월부터 새로운 법회장소는 Pinckneyville Park 에 있는 Pinckneyville Community Center, Room # 5 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정기법회는 매달 둘째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입니다.  
주소는 4650 Peachtree Industrial Boulevard, Norcross, GA 30071 입니다.  
구글에 찍으면  
4650 Peachtree Industrial Boulevard, Doraville, GA 30360 으로 나오는데 꼭 Norcross 로 오셔야 됩니다.
- 5월 28일 (음력 4월 15일) 부터 약 3개월 동안 하안거 결계 기간입니다. 이 기간동안 부다나라 불자님들도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고 수행과 공부하는 마음으로 뜻깊게 여름 한 철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 불기 2554 번째 맞이하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 인 “부처님 오신 날”에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는 일년 연등은 110개 일년 영가 연등은 16개 를 부처님 전에 올렸습니다. 부다나라 전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부처님 오신 날 칠일 기도 및 법요식에 필요한 공양금을 시주해 주셨고, 법요식 전날부터 모든 불자님들이 성공적인 법요식을 위해 관불꽃꽂이 및 식사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올해에도 불자님들의 한 마음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준비해주신 덕분에 성공리에 모든 행사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소원 성취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 드립니다.
- 애틀랜타는 부다나라 소식: 올해에도 애틀랜타에 아직 법당이 마련되지 못해서 공원에서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 겸 가족과 함께 하는 부처님 오신 날을 가졌습니다. 다소 쌀쌀한 날씨였으나 부다나라 불자님들뿐만 아니라 조지아 공대 불자님들도 대거 참석해서 열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모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치뤄진 부처님 오신 날 행사 였으나 불자님들의 숭선 수범속에서 음식 및 화합의 시간등이 다채롭게 펼쳐 졌습니다. 이날 특히 처음 첫선을 보인 부다나라 합주단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준비한 “부처님 오신 날” 잊지 못할 만큼 최고 였습니다. 성불합시다.

**2010년 5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13번 갑술생 보련화 오은경, 38번 경자생 염종선, 39번 병진생 염성준, 40번 경술생 윤경석, 41번 임자생 염희정, 67번 갑진생 박봉성, 68번 경술생 정성희, 69번 계미생 박준영, 70번 갑신생 박준희, 71번 임술생 윤수련, 317번 병신생 김재동, 318번 경자생 한창란, 319번 을축생 김락현, 320번 신미생 김미현, 321번 병인생 Hee Jun Yun (윤희준), 397번 경자생 양동석, 398번 경자생 정규애, 404번 갑술생 오민아, 519번 계묘생 김덕호, 520번 신축생 이병욱, 521번 신미생 김정우, 522번 갑술생 김수우.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첫째주 일요일에 있고 매달 동참비는 \$10.00 입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 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가람을 지으면, 그가 후세에 태어나는 곳마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탁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의 자비하신 참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고자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웁니다. 또한 물질과 마음의 정서가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교양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불교인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 인연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비심이 지극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된 부다나라 템플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국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희망차고 기쁨에 찬 수행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은 이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비의 문이 열리고 이 세계가 불국정도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부처님 불사는 \$10,000(일천만원)이고, 한 평 불사는 한 평에 \$1,080.00(백 팔만원)입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한 평불사: 계묘생 여래성 Seonyoung Kim, 무인생 법화행 신경숙, 을유생 법성월 신동희, 임진생 법성화 신동림, 무신생 정행 원상희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미국 부다나라 (불국사), 또는 한국 불국회 로 연락 주십시오.

**Buddhanara Temple (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 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 (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 불 합 시 다.